

危機의 哲學 哲學의 危機 (六)

鄭璣

「나」를 안어주고 길러준 情든 이 搖籃을 등지고, 草根木皮를 찾아 男負女載로 北滿洲를 헤매이지 아니치 못하는 오늘의 이 現實은 참으로 옳지 못한 現實입니다. 옳은 것은 正常態이며 옳지 못한 것은 非正常態입니다. 우리는 헤매이기 前에 宜當히 衣食住하야 人間的 活動을 敢行할 수 잇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正常的이고져 하는 또한 이것이야 할 哲學이 오늘과 같은 不正常的인 足下의 現實을 그대로 좇어야하겠습니까? 哲學이 「現實」을 떠나 있지 못한다는 건 勿論 正常的 現實을 云謂한 것이겠습니다. (以下 八行略) 마땅한 일로 衣食住의 障礙가 없든 裕足한 生活地盤에서 胚胎된 지나간 哲學과 正常態의 產物인 眞正한 哲學은 以上과 같은 너머도 危機的인 오늘의 現實에 다시는 推定하면 아니됩니다. 盲從을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精神異常者의 發言을 믿을 수 없으며, 우리는 그 所爲이 無理한 것인 境遇에는 反旗를 高揚할 入場을 갖었습니다.

卽 面今엔 正常態가 아닌 現實만 옳지 못한 現實만을 肯定하야 옳은 哲學을 歪曲해서 現實에 附合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正常的인 眞正한 學問과 哲學이 流出될 理 萬無합니다. 이유인즉 緣木求魚라 하겠습니다. 이들이 做出하는 哲學이란 充□을 □□하는 歪曲된 方便的인 哲學 卽 □□의 哲學입니다. 前稽의 原理에 依하야 벌서 哲學은 아님다. 飢渴者의 掠奪策 外에 아무 것도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正常態를 基礎로 立脚된 諸般의 上部構造는 因果的으로 眞正 卽 正常的이리라는 것은 平凡한 理論인 同時에 非正常態에 是 上部構造의 무엇일 것은 不問可知라 하겠습니다. 오늘날 哲學이 目擊하는 바 우리의 不自然을 □한 非常的 現實을 追從할 때 그 自我性을 忘却하는 것과 眞正한 哲學의 塊沒--破滅인 것입니다. 오히려 自明한 理致입니다. 그것은 哲學의 現實에의 完全投合이기 때문입니다. 哲學의 危機는 오고야 말았습니다.

哲學의 危機

우리의 現實을 구출해내지 않으면 아니될—아니칠 못할 哲學은 果然 危機에 섰습니다. 이것은 善者가 惡을 犯치 아니하라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地境에 處한 危機一髮의 境遇와 마찬가지로입니다. 危險한 곳에 接近하지 아니하여야 할 君子는 方今 接近하지 아니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果然 間不容髮의 切迫한 이 危機! 現實의 危機인 同時에 哲學의 危機입니다. 나는 於是乎 哲學의 危機를 絶叫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哲學은 不自然을 極한 現實에게 餘地 없이 侵喰을 當하고 있습니다. 哲學의 危機! 이것은 오늘 갑자기 생긴 부르짖음은 안입니다. 哲學의 危機를 絶叫하게까지 된 오늘의 哲學은 벌써 危機以前의 哲學은 아닐 것입니다. 卽 正常態에 있어서의 根本形은 아닐 것입니다. 哲學의 危機! 哲學은 그 本務와 使命을 反省하여야 할 때는 왔습니다. 果然 哲學은 危機에 直面하고 있습니다. 그 危機의 切迫狀인즉 現實의 그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이것이 卽 現實입니다. 하나만 正常態에 安坐해 있는 것이 아니고 다가치 危機에 直面하고 있는 이 現實입니다. 一種의 要請에서 捏造된 最近의 哲學이 英米流의 「프랙마티즘[프래그머티즘]」입니다. 果然 實用主義가 우리에게 寄與한 바가 무엇입니까? 哲學으로 하여금 더 一□迷漾으로 危機로 미러트린 허물밖에는 없습니다. 哲學은 認識論에까지 와서 드디어 向方을 잃었습니다. 一種의 方法論에 不過한 認識問題를 本務나 같이 誤認한 哲學은 □□하고 있으며, 갈 바를 찾으려 虛空을 허우적하고 있습니다. 哲學이 救援의 길고 다시 가야할 곳은 오직 形而上學이었을 뿐입니다. 形而上學의 出身인 哲學이 어버이를 저버리고 故□에 날뛰어난 結果는 그뿐이었을 것입니다. 哲學이여! 形而上學으로 도러가라! 哲學은 形而上學으로 再復興하여야 할 物件입니다. 거기가 唯一의 安息□活舞臺이라 합니다. 哲學의 形而上學에의 復興는 哲學 自身の 危機를 克服하는 것인 同時에 危機의 現實을 救出하는 順序的 一段階가 된다는 것을 斷言하고 越□의 貶을 삼가 이것으로 □□ 하겠습니다. (於 靈光)